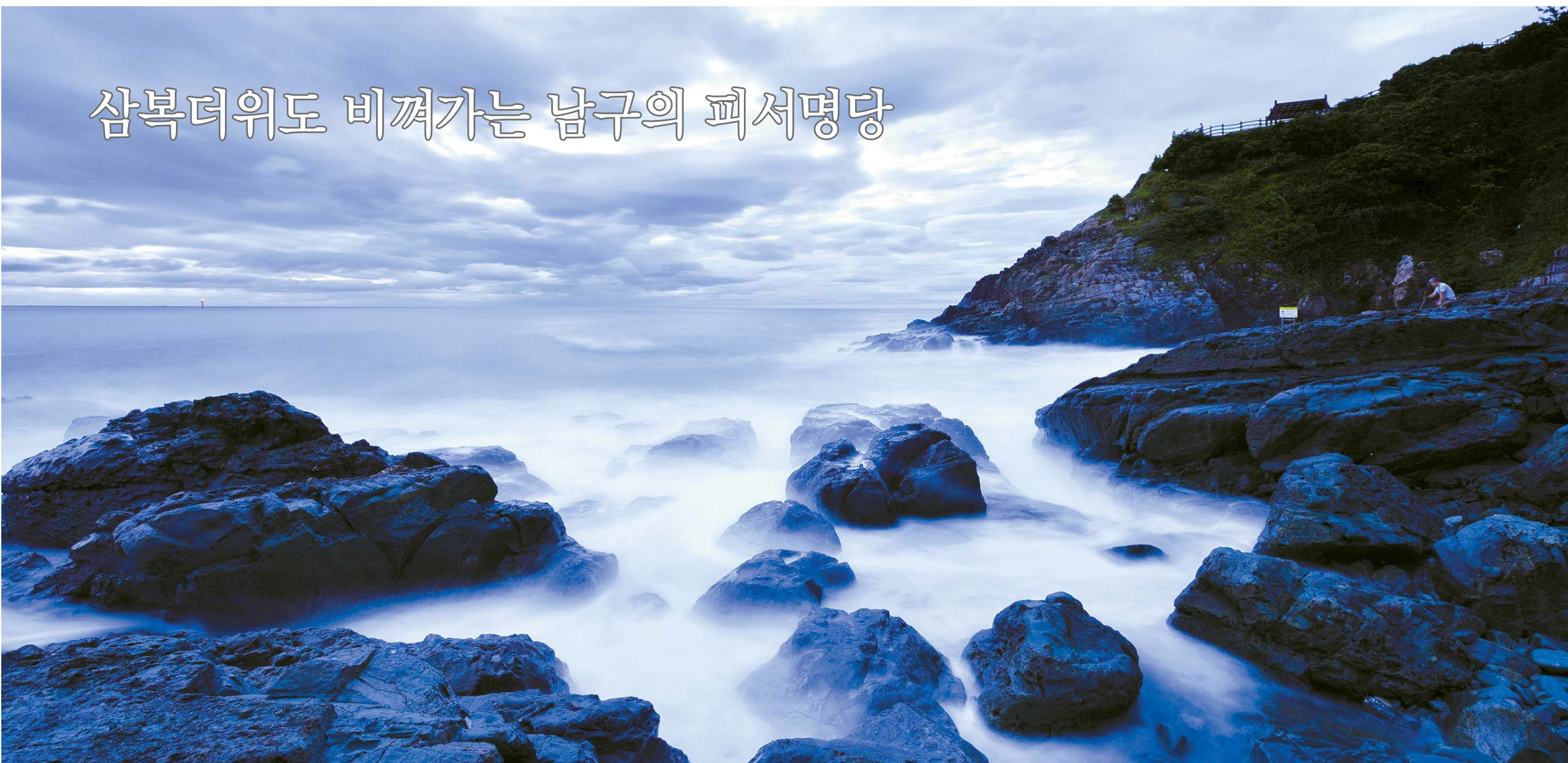


이무현의 춘하추동



언론인 출신 사진작가 겸 본지 명예기자

남구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사진으로 소개하는 '이무현의 춘하추동'을 분기별로 게재합니다. 이무현 사진작가의 감각적인 영상과 따뜻한 필체가 평범한 일상에 깃든 특별함을 포착합니다. 지상 갤러리에 소개된 사진 외에도 더 많은 작품들이 남구청 홈페이지(www.bsnamgu.go.kr)에 수록됩니다.



## 삼복더위도 비껴가는 남구의 피서명당

### 이기대 동생말의 아침 풍경

이기대 동생말의 갯바위를 덮는 거센 파도를 장노출로 담으니 수목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. 7월 초 태풍 뿌라베룬이 지나가던 날 아침.

파란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짙푸른 숲,  
한 줌 쥐어짜면 쪽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여름이다.  
여름은 젊음, 뜨거운, 열정 따위의 수식어가 어울린다.  
계절이 주는 멋진 풍경은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.

향긋한 꽃길, 시원한 파도소리 들으며 걷는 이기대.  
이기대 청량한 여름 바닷가는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.  
그 풍경은 싱그러운 청춘의 기억과 닮아 있다.  
바다 근처에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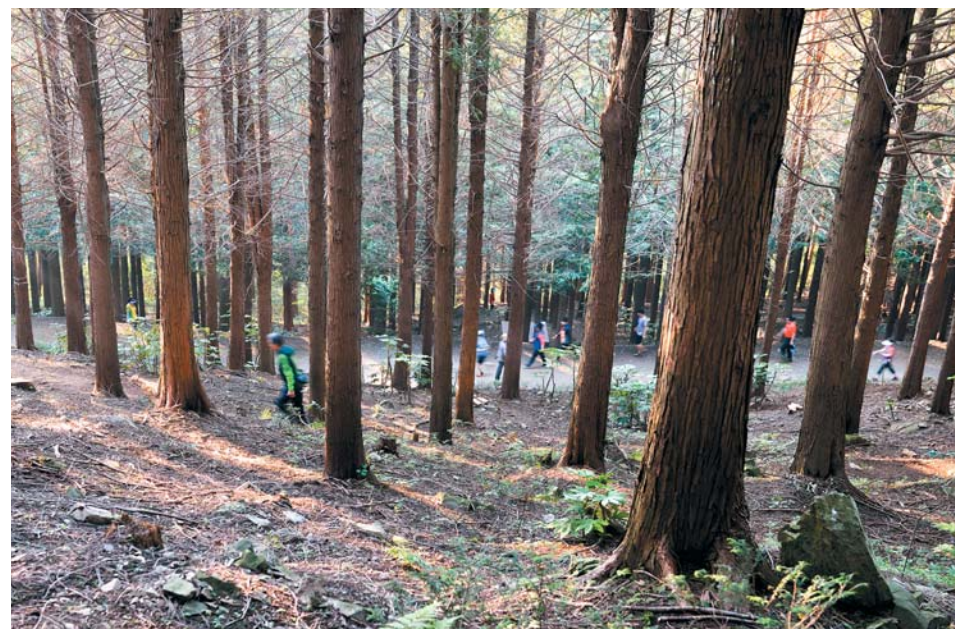
눈을 들면 가까이 나무의 바다, 초록의 바다가 있다.  
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에서 '초록 샤워'를 할 수 있다.  
잠시 짙을 내 바다나 계곡, 숲으로 들어보자.  
부산 남구의 여름 이야기는 짧 짧하고 상큼하다.

사계절 어디 추억의 계절이 없을까하는  
특히 여름은 뜨거운 열정만큼 추억이 진한 계절이다.  
여름은 계절의 청춘이고 청춘을 추억하기 좋은 계절이다.  
이 짧은 계절이 가기 전에 뜨겁고 진하게 즐겨볼 일이다.



### ‘여름 속 겨울왕국’ 남구빙상장

잠마가 일찍 끝난 뒤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남구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더없이 밝다. 바깥 기온보다 무려 20여 도나 낮은 빙상장은 운동과 여가, 여름 피서지로 제격이다.



### 편백숲에서 산림욕

황령산 남쪽 바람고개 부근은 편백나무가 하늘을 덮고 있다. 산책로와 임도, 나무의자와 평상이 잘 갖춰져 있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더위도 피하고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.



### 이기대의 여름꽃밭

고온다습을 즐기는 참나리꽃이 이기대 해안가에 군락으로 피어있다. 초여름 이기대 해안 산책로와 바위틈에는 참나리와 원추리 등 갖가지 꽃이 피어 보는 즐거움을 더해준다.



원추리



뽕의난초



부처꽃



물풍선



### ● 평화공원 바닥분수

아무리 바다가 좋아한들 이곳만큼 할까. 시원한 물놀이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! 이곳에서만 보는 아이들의 천국 '여름실종'이다.



남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촬영한 이무현 작가의 사진물을 저작권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. 판매 등 상업적 용도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무방합니다. 사진은 남구청 홈페이지(www.bsnamgu.go.kr)에서 미디어→사진→ '남구의 사계'에서 내려받기 하면 됩니다.